Living the Lotus 9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52



8월25일, 입정교성회 대북교회가「우란분절 식전・중원보도법회」식전을 엄수
2일간 법화삼부경 독송공양을 거치고 올려드린 진심이 담긴 기도

Living the Lotus
Vol. 252 (September 2026)

발행: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03-5341-1124 / Fax:03-5341-1224
E-mail: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아까가와 케이치
편집장: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会長法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등불을 밝히자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입정교성회 카지카자와 교회 입불식 후에 열린「회장선생님과의 결연(結縁)」때, 분재 소나무에 모래를 넣는 니와노 회장님. 분재 소나무는 이전 도량에 니와노 회장님께서 직접 심으신 소나무에서 꺾꽂이 한 것. (올 6월、야마나시・후지카와의 초등학교 체육관)

암흑을 한탄하기보다

지금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압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황 레오14세는 올 봄부터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자'고 호소하며 '자기숭배와 금전숭배를 멈춰라. 힘의 과시를 멈춰라. 진정한 강함은 생명에 대한 봉사가 행해지는 곳에 나타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교황의 메시지에 대해 비난을 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과 말을 사용하는 능력이, 오히려 다툼과 불화를 초래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한탄하며 방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저 그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언(立言:의견 등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 혹은 후세에 남겨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사상가로 알려진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1898-1983)선생이 직접 지은 '일등조우행(一燈照隅行) 만등편조행(万燈遍照行)'입니다.

'암흑을 한탄하기보다 하나의 등불을 켜자／먼저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자／미약하더라도 한 구석을 밝히자／손이 닿는 한, 가는 곳마다 등불을 밝혀 이어 나가자／한 사람이 하나의 등불이 되면, 만인 만등이 된다／나라 전체가 금세 밝아진다／이것이 우리들의 일등조우행, 즉 만등편조행이다／이 세상을 바로잡는 행에 진심으로 서로 노력해보지 않겠는가'」

입언 속에 '나라 전체'라는 부분은, 이제는 '세계'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로잡는 행'이라는 부분도, 혼자서 어떤 큰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달에 말씀드

린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의 연장 선상에 있는, 가까운 생활 속 실천을 권유하는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교황께서는 '아주 조금의 신앙만 있어도 인류로서 인류와 함께, 이 격동하는 역사의 한때에 함께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소 생활 속 실천이 한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그것이 몇 억, 몇 십억이 되었을 때, 새까만 우주 공간에서 한층 더 파랗게 빛나는 별에 어울리는, 밝은 지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닿는 곳까지도

이 입언에서 '손이 닿는 한. 가는 곳마다 등불을 밝혀 이어나가자'는 구절도 '손이 닿는 범위에서'라고 읽으면,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의 나의 보시행이, 암흑 세상을 비추는 광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달 10일에, 본 회의 협조님(나가누마 묘코)의 명일인 '보은회'를 맞이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협조님께서는 만나는 사람 모두를,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도를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등불을' 밝혀서 이어가는 자비행에 철저하셨고, 눈앞에 곤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음식도 이불도 돈도, 그때 입고 있는 당신의 옷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내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으로 눈을 돌려 '손이 닿는 범위'를 보면, 가족은 물론 근처 이웃들, 전철이나 버스에서 옆에 나란히 선 사람들, 편의점 계산대에 줄을 선 사람 등도 손이 닿는 범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소와 감사, 그리고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주위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위로와 감사의 말은 가정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등불이 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먼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도 또한 고귀한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종교의 다름을 극복하여,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평화의 등불이 널리 퍼지기를 틀림없이 염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켠 한 구석을 밝히는 등불은, 언제까지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개조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발밑의 실천을 지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갑시다.



(『교성』 2026년9월호)

Interview

「정진에 끝이란 없다」를 가슴에,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매일 수행을

입정교성회 로스앤젤레스 교회　마스노 나오미(増野直美)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입정교성회 신앙과 연 닿게 되었습니까?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라난 저는 1980년에 결혼을 하고, 시댁이 오사카 교성회 회원 가정이었던 것이 신앙의 계기였습니다. 남편을 비롯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열정적인 회원이었습니다만, 낮에도 밤에도 지부 회원과 청년부 리더들의 드나듦이 굉장히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 해, 1981년에 장남을 얻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버블 경기로 들떴던 남편은 거의 매일 밤 외박을 하고 아침에 돌아오는 날의 반복,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해 갔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어. 가능하면 이혼하고 싶다……' 고 생각하게 되어, 잠시동안 장남을 데리고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몸을 걱정하신 지구 조장님과 주임님이 빈번하게 되도리를 와 주셨습니다. 당초, 저는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을 했었는데 몇 번이나 아파트에 오시는 승가(함께 신앙을 하는 동료)분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마음이 움직여, 아들의 데리고 조금씩 오사카 교성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성회에서는 조장님과 주임님이 "요즘에는 어때? 힘들지 않아?" "무슨 일 생기면 주저말고 얘기해"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으며, 어린 아들을 돌봐주셨는데 그 덕분에 법회날 식전과 당번수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승가 분들이 자기일처럼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셨군요...

그 후에도 저는 남편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몇 번이나 이혼장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시의 지부장님께 남편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부장님께서는 "남편과의 문제는 당신에게 필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지금의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똑같은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이혼하고 안하고는 부처님께 모두 맡기고, 지금은 우선 일심으로 부처님 수행을 합시다" 하며 엄하고도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오로지 되도리와 법좌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스노 나오미님

그러자 얼마 후, 신기하게도 긴 시간 완고하게 이혼을 부정했던 남편이 순순히 이혼장에 사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 조건은 장남의 친권자를 저에게 해 놓는 것 뿐, 양육비와 위자료는 없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혼이 성립하여 각자 새로운 인생을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자의 몸으로 아들을 키우는 데에는 경제적인 고통을 비롯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내 아이를 지켜 낸다는 강한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때로는 마음이 꺾여 버릴 것만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가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며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지탱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키우면서도 낮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지부 청년여자 부장으로 되도리 수행을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매 연성회와 칠면산 참배에도 참가하여,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 곁에서 키워져 고분고분하며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기 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한 다음 해인 1992년 2월, 학생때 친구와 함께 관광여행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저는 운명이 이끌린 듯한 타이밍으로 현재의 남편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라스베가스에서 관광객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에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 주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기투합하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그와 만났던 것입니다. 그 때, 저는 마치 영화나 소설과 같은 우연이라고 생각지 못할 정도의 놀람과 강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 "만약 오사카에 올 기회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라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친구와 저는 다음날 귀국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정말로 그가 일로 오사카에 오게 되어, 저는 그와 감동적인 재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인연



가족들:남편(왼쪽 위)、장남(왼쪽 아래)、손주(오른쪽 위)

Interview



1996年、ロサンゼルス教会の皆さんとアリゾナ拠点のご本尊ご安置式に参加して(前列右が増野さん)

이 되어, 서로에게 이혼을 경험해서 독신이 된 일부터, 저희들은 1993년 11월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결혼을 해도 입정교성회 신앙은 계속합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도 함께입니다" 하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동경 스기나미에서 지냈던 적도 있어서 입정교성회 대성당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선조공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제가 입정교성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표명해었으며, 물론 아들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입정교성회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는 일본어 지부의 지부장 역할을 해오셨군요.

저는 2003년부터 주임과 부인부장을 겸임하고, 2007년부터는 일본어 지부장 역할을 20년 가까이해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당초에는 다른 문화와 습관 속에서 당혹스러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교성회 수행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의 다름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협조성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부님의 지도말씀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하며 동의를 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며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명확하게 자기주장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쪽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회원분들을 접하는 가운데 각자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국민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Interview

현재 살고 있는 팜스프링스에서 로스엔젤레스 교회까지는 약 200킬로 떨어져 있어서 차로 약 2시간 걸립니다. 젊었을 때에는 당일 치기로 도량을 다녔습니다만, 현재는 매월 당번수행은 숙박을 하며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도량을 가는 도중에, 도량에서 멀리 살면서, 아기나 어린 아이 등을 키우는 회원들을 되도리 하면서 당번 수행과 법회날에 참가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심을 깊이 함과 동시에 이전에 승가분들께 받은 것처럼, 슬퍼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며, 지금까지 많은 회원 분들과 연 닿아 왔습니다.

입정교성회 가르침 중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한 초기에는, '내가 가르쳐 주지!" 하고 말 하는 것처럼 무의식중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가 나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알려 달라고 한 적 없어" 하며 저의 거만함을 지적하는 말을 하여 제 자신의 고만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한번 제 자신 아집이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연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나를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올해 6월에 일본어 지부장 역할을 퇴임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십니까?

회장선생님께서는 평소 '정진, 정진, 죽을 때까지 정진, 다시 태어났다면 또 정진' 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역할을 퇴임해도 부처님 수행은 계속 되므로, 앞으로도 회원강령에 나와 있는 인격완성을 목표로 매일 정진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전 상담역 그리미쯔 키누요님(고인)은, 고령으로 지부장 역할을 내리고 나서도 당신이 운전을 해서 동년대 회원 분들을 매월 법회날에는 반드시 참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미쯔 전 상담역님을 신앙인의 본보기로 삼아 '정진에 끝이란 없다' 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3월29일, 로스앤젤레스 교회 일요 식전에서 강화를 한 마에다 국제전도부장님(앞 줄 중앙)과 함께 (앞 줄 왼쪽에서 4번째가 마스다님)

자비심에서 생겨나는 엄격함

엄격한 말도 고분고분 들을 수 있다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니치코(庭野日敬)



1993년9월、입정교성회 치요다 교회（당시）순례

이 엄격한 훈계가, 커다란 자비에서 발하고 있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가 특히 감탄을 한 것이 ‘물’을 사용하여 훈계를 하신 깊은 지혜입니다. ‘물’은 본래 청정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그 ‘물’에 비유하여 ‘그대는 본래 물과 같은 깨끗한 본질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라후라는 고분고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석가모니의 지도력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전을 읽어봐도 석가모니께서 “너는 안되는 인간이야”라는, 상대의 본질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훈계를 하실 때에도 상대방의 잘못된 마음 가짐과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지적하셨습니다. 상대는 그것이 사실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으므로 고분고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분고분 들으면, 엄격함이 엄격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엄격함인 것입니다.

도량에서도 법좌에서도 조금 엄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나 상대방의 본질을 인정하고 미덕과 장점을 인정을 한 후의 엄격함이라면 반드시 이해 받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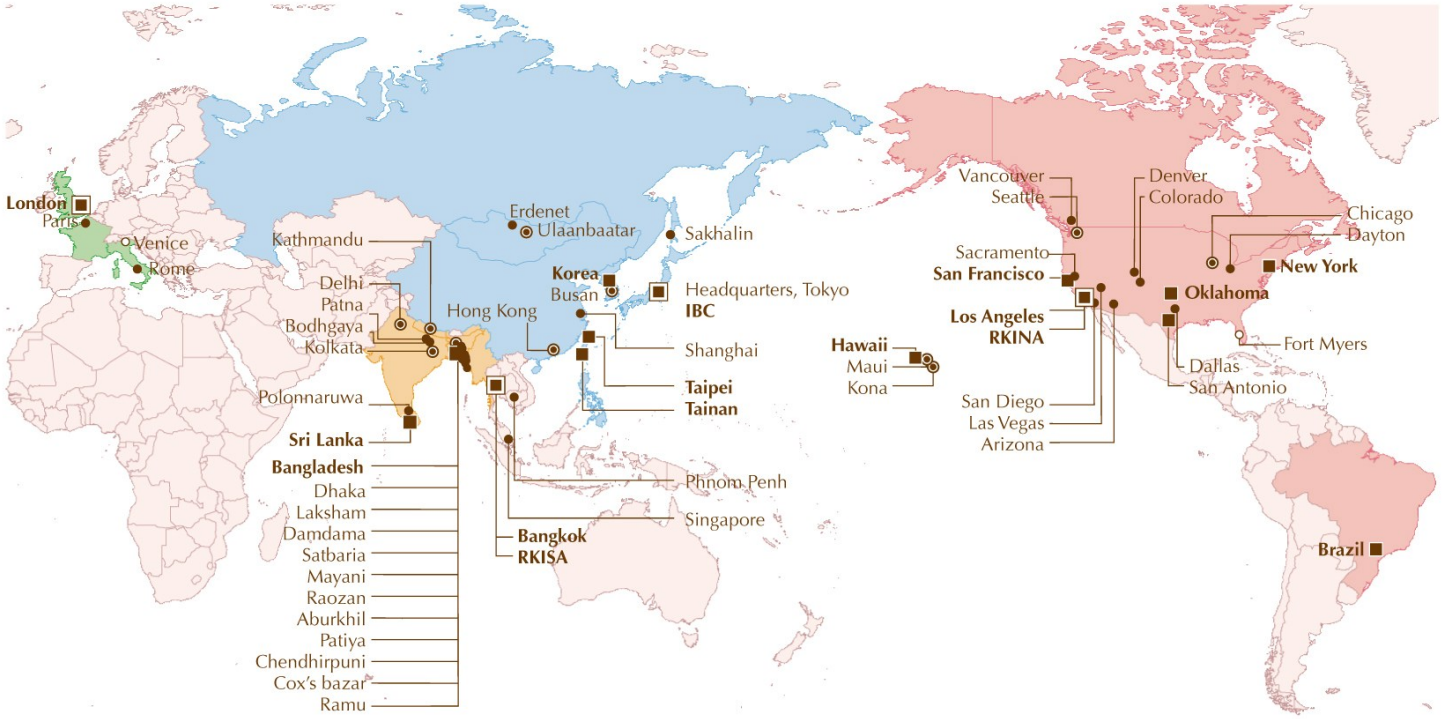
부회장이었던 나가누마 묘코 선생님(협조)은 ‘이 사람을 진짜배기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에, 젓가락질 하나하나 까지 지적했습니다. 법의 실천 방법은 물론, 평소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간부님들이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만, 묘코 선생님의 훌륭한 부분은 그 엄격한 말 하나하나가 커다란 자비심에서 발하고 있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일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질책과 충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숙부에게 엄하게 혼났습니다. 그 때 “머리가 좋은 네가 어째서 그런 일을 한 것이냐”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가 좋은 네가” 라는 한 마디가 쿵 하며 가슴을 울리며, 혼이 나서 미워하기는커녕, 그 숙부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80살이 지난 현재까지 그 말이 마음의 의지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는, 석가모니께서 ‘일체개고’ 라고 설하셨듯이 ‘고’ 가 넘치는 혹독한 세계입니다. 그 혹독한 세계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단련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키우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100% 애정이 필요합니다만, 때로는 엄격한 말을 함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저희들이 현실 생활에서 여러가지 고난과 직면했을 때, 그 속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면 그곳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니와노닛쿄 헤세 법화집1『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중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A Global Buddhist Movement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